

사랑 사랑

회원통신 제32호(97/8/15)

인권운동사랑방「SARANGBANG」Centre for Human Rights, Korea
(110-522) 서울 종로구 명륜2가 8-29 4층

대표전화: 741-5363, 팩스:741-5364 통신ID: rights(천리안, 하이텔) 인권사랑(나우누리)

E-mail; rights@interpia.net Internet Web; <http://www.interpia.net/~rights/>



<르완다 대학살>/캐나다/1996/다니엘 라코세, 이반 페트리 감독/다큐



<호남호녀>/대만/1995/후 샤오시엔 감독/극영화

제 2회 인권영화제가 오는
9월 27일부터 10월 4일까지
개최됩니다.

올해도 역시
'인간을 위한 영상'을 모아
여러분을 모십니다.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서

-8월 12일 기자회견에서 발표한 성명서-

‘인권’의 의식이 우리 사회의 구석구석에 깊숙히 스며들기를 희구하는 인권운동가들의 꿈, 그리고 영화를 통하여 사회와 인간이 한없이 착해질 수 있다는 영화인들의 믿음, 이것이 작년 ‘제1회 인권영화제’를 성공으로 이끈 원동력이었습니다. ‘제1회 인권영화제’의 관객들은 우리가 세계 곳곳에서 열심히 모은 ‘인간을 위한 영상’에 아낌없는 환호와 박수를 쏟아냈습니다. 그것은 돈이 성공을 의미하는 메마른 이 사회에서 ‘인간’이 복권되는 순간이었으며 우리는 ‘제1회 인권영화제’가 진정 ‘신선한 바람’임을 확신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본시 현실에서의 도피와 찰나의 쾌감은 인간의 존엄과 부합되는 개념이 아닐 것입니다. 이것이 기본적으로 상업주의의 영상을 가지고는 인권과 평화를 추구할 수가 없는 까닭입니다. 생존을 위한 일상의 각박한 경쟁 속에서, 허우적거리며 지쳐 빠진 우리는 가끔 간절하게 위안을 구하여 손을 내밀곤 합니다. 그러나 그 손길이 닿는 곳에는 언제나 알팍한 상업주의가 제공하는 찰나적인 재미가 기다리고 있을 뿐입니다.

어디엔가, 인간의 존엄을 깨닫는 일 그 자체가 동시에 오락인 그런 위안은 없는가? 우리가 일상의 전쟁에 피폐되어, 사는 일마저도 포기하고 싶어질 때 다시 용기를 내어 인간으로서 일어설 수 있게 해주는, 그런 진정한 위안은 없는가? 기도를 드리듯 경건한 마음으로 우리는 작년에 이어 다시 ‘인간을 위한 영상’을 찾아 나섭니다. 올해도 다시 한가닥 신선한 바람이 일기를 기대하면서 ‘제2회 인권영화제’를 준비합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는 헌법에 위배되는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거부합니다. 최근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검열 시비에도 불구하고 이와 같은 결단은 표현의 자유를 그 가장 근본적인 생명으로 하는 ‘인간의 권리를 위한 영화제’에

허락된 유일한 선택임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는 이런 결단이 필연적으로 몰고 올 모든 고난을 씩씩하게 이겨나가 우리나라에서 표현의 자유권의 비약적 신장을 위한 초석이 되기를 원합니다.

앞길에 버티어 선 상업주의와 검열제도의 장벽을 이겨 나가며, 우리는 '제2회 인권영화제'가 작년과 마찬가지로 다시 관객들의 환호와 박수에 힘싸일 날을 착실히 준비할 것입니다. 규모를 추구하지도 않고, 그리고 화려함을 추구하지도 않고....

1997년 8월 12일

제2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

<제2회 인권영화제의 의의 및 목적>

본 영화제는 대한민국에서 열리는 유일한 인권영화제로서 다음과 같은 의의와 목적을 지닌다.

① 인권교육

본 인권영화제는 우리 사회의 인권의식을 영화라는 대중적 매체를 통하여 확산 시킴과 동시에 한단계 높이는 데 기여한다.

② 새로운 영화문화 창조

본 인권영화제는 상업주의와 오락영화가 범람하는 우리 사회에 '인권'을 주제로 한 신선한 영화를 집중적으로 공급함으로써 국민들의 영화에 대한 인식을 새롭게 하는 데 기여한다.

③ 표현의 자유 수호 (검열 거부)

본 인권영화제는 영상예술에 대한 사실상의 검열인 사전심의를 '인권'의 이름으로 거부함으로써 우리의 '표현의 자유권' 보장이 국제적인 수준으로 성장하는 과정에서 겪어야 할 고난에 적극 동참한다.

인권영화제 기자회견 가져

조직위원장 선임

지난 8월 12일 제2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회는 기자회견을 갖고, 일정과 상영작품 등을 밝혔습니다. 기자회견 전에 열린 조직위원회에서는 조직위원장으로 이돈명 변호사, 한상범 동국대 교수, 정지영 감독을 선임하였습니다. 조직위원회에 참가한 리영희 교수님은 조직위원장은 고사하셨지만, 다른 위원장이 고사하면 위원장 역할을 맡겠다고 하셨습니다. 리영희 교수님은 인권영화제의 정신을 “인권·평화·생명·사랑”으로 정리 하셨습니다. 조직위원회는 집행위원회가 준비한 대로 오는 9월 27일부터 10일 4일까지 동국대에서 영화제를 열기로 하였고, 집행위원들을 인준하였습니다.

제2회 인권영화제 조직위원으로는 위에서 거명되신 분들 외에 김상근 목사, 김승훈 신부, 지선 스님, 구중서 민예총 이사장, 박용길 장로, 김증배 선생님, 가수 정태춘, 영화 배우 안성기, 이성재 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 이사, 김동완 목사, 김성수 성공회 전 주교, 이창복 전국연합 상임의장, 지은희 여연 대표, 허창수 신부, 권영길 민주노총 위원장, 김진균 교수, 남영진 기자협회 회장 등 21명으로 확정하였습니다.

시종일관 진지했던 기자회견

종로성당 3층 강당에서 1시간 이상 진행된 기자회견은 시종일관 진지한 분위기 속에 이어졌습니다. 이는 인권영화제에 대한 기대가 그만큼 크기 때문입니다. 올해 들어와 영화제 만도 곳곳에서 침탈을 당했고, 만화가들까지 입건되는 등의 표현의 자유가 억압당하는 상

황이 연출되는 상황에서 사전심의마저 거부하는 인권영화제가 성공리에 개최된다는 것 자체가 표현의 자유 확보를 위한 중요한 투쟁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올해의 영화제도 지대한 관심 속에 치뤄질 것으로 예상됩니다.<자세한 내용 영화제 소식지 3호 참조>

이렇게 합시다.

영화제는 인권의식을 확산하는데 매우 큰 기여하는 중요한 사업입니다. 이 사업에 적극 주인으로 참여합시다.

1. 주위 사람들에게 영화제를 적극 홍보합시다.
2. 주위 사람들에게 후원할 것을 적극 권유합시다. 후원 방법은 1만원 이상을 영화제 구좌로 입금한 후 영화제 사무국(전화: 741-2407, 741-5363)으로 전화하면 됩니다. 후원회원에게는 해설책자와 소식지를 보내드리며, 상영기간 중 우선 입장의 권한이 부여됩니다.
3. 운영·자문위원은 1인당 5만원 이상씩 후원하도록 합시다. 이번 영화제 성사를 위해 특별 성금을 내주시기 바랍니다. 결국 영화제는 우리가 주체적으로 만들어가야 합니다.
4. 영화제 상영기간에 적극 관람합시다. 상영작품들은 영화제외에는 접하기 힘듭니다. 가급적 많은 영화를 관람하면 많은 도움이 될 것입니다.
5. 자원봉사하실 뜻은 없습니까? 영어, 불어, 일본어 등의 어학능력으로, 또는 재정조직, 홍보 등에 자원봉사할 뜻은 없으십니까? 연락 기다리겠습니다.

<영화제 구좌번호>

국민 822-21-0276-824(예금주 서준식)
농협 033-02-119388(예금주 서준식)
제일 110-20-342272(예금주 서준식)

<인권하루소식> 합본 8호 발간 늦어져

사 / 업 / 보 / 고

(97년 7월 셋째주부터 8월 둘째주까지)

전기화재, 3일간 업무중단

-7월 28일 저녁, 전기 사용 과부하로 인해-

지난 7월 28일 저녁 8시경 사무실이 세들어 있는 건물 1층에서 전기화재가 발생했습니다. 당시 사무실에서는 <인권하루소식> 팀들이 편집작업을 하고 있는 등 6명이 사무실에 있었습니다. 건물 전기가 갑자기 나가면서 지독한 냄새와 함께 1층 복도를 따라 연기가 올라와 사무국 사람들은 급히 옆 건물의 옥상을 통해 탈출했습니다. 결국 그날 <인권하루소식>은 발송하지 못하였고, 긴급히 상황을 알리는 속보를 과거청산국민위 사무실에서 냈습니다.

여름철 전기 사고가 많이 난 관계로 화재복구 공사는 계속 늦어져 7월 31일에서야 겨우 전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3일 동안 전화, 컴퓨터, 냉장고, 에어컨, 선풍기 등을 쓰지 못하여 실습생들은 밖에 나가서 교육을 실시하였고, 사무국 사람들도 인근의 타단체 사무실이나 커피숍 등을 활용하여 일을 해야 했습니다.

전기 하나로 인해 현대 문명의 도구들을 사용하지 못하는 현실을 절실하게 맛보야 했습니다. 현대 문명이 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정도가 얼마나 큰가를 실감할 수 있었습니다. 이번 전기화재는 과부하로 인해 1층의 메인 콘트롤박스에서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어쨌건 사무국으로서는 엄청난 고통을 당해야 했습니다.

이번 사고를 겪고 사무국은 먼저 에어컨과 냉장고부터 절전을 하게 되었습니다.

화재 사고로 심려를 끼쳐 드려 죄송합니다.

<인권하루소식> 합본 8월호를 기다리던 여러분께 죄송한 말씀드리게 되었습니다. 7월말로 발간작업까지 완료하려 했던 합본호 작업이 사무국과 인쇄소의 휴가와 겹쳐지고, 일정상 작업이 늦어지면서 어쩔 수 없이 이번달에 내게 되었습니다. 현재 원고는 모두 마무리된 상태이기 때문에 곧 인쇄를 마치고, 여러분께 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급적 빨리 작업을 완료하여 발송해 드리겠습니다.

8월 사회복지 실습, 서울신대 등 7명

사회복지학과 학생들의 실습이 7월에 이어 8월에도 진행됩니다. 8월에는 서울신학대, 송실대, 연세대에서 7명의 학생이 참가하고 있습니다. 교육과 업무 보조로 이어지는 학생들의 실습은 14일 현재 중간평가까지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번 실습생들은 2일씩 동라가며 <인권하루소식> 제작과정에 참가한다는 것입니다. <인권하루소식> 팀과 아침에 편집회의를 갖고 취재를 하고, 기사를 작성, 검토를 받은 저녁 늦게서야 퇴근하게 됩니다.

연세대 교육동아리 '여름', 인권교육 결합

연세대 교육동아리 '여름'이 사랑방과 함께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어가기 위해 준비작업을 하고 있습니다. 지난 겨울 사회단체연수학교가 계기가 되어 인연을 맺은 여름은 본격적인 인권교육 프로그램을 만들기 전에 인권에 공부부터 하기로 하였고, 이에 교육실장이 학교로 교육을 진행중입니다. 여름은 지난 5월, 『세계의 약속, 아이들의 인권』 책자를 만드는데 기여하였고, 앞으로 학생들을 대상으로 한 인권교육이 내용과 형식을 교육실과 고민하여 만들게 됩니다. 학교에서 제2대학을 준비, 매년 강좌들을 성사시켜 온 경험이 풍부하고, 인권교육에 대해 회원들이 워낙 적극적

이러서 그들이 만들어낼 프로그램이 벌써부터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재미동포 KEEP 학생들 방문

1.5세와 2세 재미동포 학생들이 참된 조국의 모습을 배우고, 이를 통해 조국의 발전에 기여한다는 목표로 매년 여름 진행되는 '조국체험교육프로그램'(KEEP)이 올해도 8명의 재미동포 학생들이 참가한 가운데 열리고 있습니다. 이들은 매년 들어와 한국의 주요 사회문제에 대해 공부하고, 농촌과 광주 등지를 방문하여 몸으로 조국의 현실을 느껴 보기도 합니다.

이 프로그램에 참가한 학생들이 지난 7월 31일 우리 사무실을 방문했습니다. 전기화제가 가까스로 복구된 뒤 어수선한 분위기에 방문하였지만, 사랑방의 하는 일을 충분히 느끼고 돌아갔습니다. 그들은 사무국장과의 대화를 통해 한국의 인권현실과 이를 극복, 개선하려는 사랑방의 사업에 이해를 하게 되었다며 고맙다는 인사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그들 중 일부 학생들은 미국에 돌아가서도 번역 작업 등으로 사랑방 사업에 결합하겠다고 약속했으며, 오는 8월 17일 사회단체 관계자들을 초청, 작별 만찬을 하고, 미국으로 돌아갑니다.

<연대사업>

전자주민카드 도입 일단 저지

사랑방 등 사회·인권단체들로 구성된 전자주민카드공대위가 적극적으로 지난 임시국회에서의 전자주민카드의 법적 근거가 될 주민등록법 개정안을 저지하기 위해 노력했습니다. 공대위는 7월 내내 집회와 토론회를 조직하여 전자주민카드 반대 여론을 형성하는 데 주력했습니다. 이런 공대위의 활동과 신한국당 의원들의 무책임한 상임위 불참으로 인해 7월 임시국회에서 전자주민카드는 처리되지 않고 넘어가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반드시 관철시키려는 내무부 등 정부의 기도가 철

회되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오는 정기국회에서 다시 전자주민카드를 막아내야 할 형편입니다. 이에 따라 공대위는 현재의 영성한 조직 체계를 보강하기 위해 집행위원회를 구성하기로 하였습니다.

전·노 YS 임기중 사면

과거청산국민위원회는 정부와 여당이 8월 15일 전·노를 석방할 것이라는 언론 보도와 정보들을 입수한 직후부터 전두환·노태우의 석방 저지를 위한 기획단을 구성하였습니다. 황상의 집행위원장과 백승헌 정책실장, 사무국장, 민가협, 전국연합이 결합하여 구성된 기획단은 전·노 사면 반대 한겨레신문 광고를 조직하였고, 유인물을 제작하였으며, 서명운동을 벌여나갔습니다. 또, 8월 6일에는 신한국당사 앞에서 전·노 사면 논의에 항의하는 집회를 열었습니다. 이런 일련의 활동으로 어려운 가운데서도 천천히 전·노 사면 반대 움직임이 가시화되던 8월 9일 청와대는 YS 임기중 사면은 원칙이라면서도 이번 특사에는 포함시키지 않는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다시 전·노 사면 문제는 물밑에 가라앉게 되었지만, 하반기에 과거청산국민위원회의 주요한 고민거리로 등장하게 될 것입니다.

인권협, 인권문제·인권운동 토론회

인권협 대선기획팀은 오는 9월 6일 골론반 수도원에서 '인권현실과 인권운동에 대한 토론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공개토론회를 갖기 전에 내부 의견을 모으게 될 이번 토론회에는 인권현실에 대해 김형태 변호사(천주교인권위원장)가, 인권운동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사랑방이 발제를 맡으며, 인권협 소속 단체의 간부, 활동가, 회원 누구든 회비 1만원만 내면 참가할 수 있습니다. 인권협 대선 기획팀은 이를 기초로 오는 10월말 공개토론회를 열고, 차기 정권의 주요인권정책을 확정할 예정입니다.

전두환 · 노태우씨를 석방하려는 신한국당을 규탄한다

우리는 전두환 · 노태우씨의 대법원 확정판결 이전부터 일기 시작한 사면논의를 예의 주시하며 경계해 왔다. 정치권이 올 대선에서 전 · 노 두 전직 대통령의 사면문제를 특정지역의 표 모으기 수단으로 활용할 가능성이 농후했기 때문이다. 이런 우리의 우려는 적중하여 신한국당 대선 프로젝트에서 8월 15일 사면을 추진한다는 계획이 세워졌음을 언론보도를 통해 확인되었다. 정부와 신한국당은 최근 다시 전두환 · 노태우씨를 '8월 15일 형집행정지 석방, 대선 직후 사면'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당 차원에서 대통령에게 건의한다고 한다.

이런 정부와 신한국당의 이런 방침은 망국적인 지역감정을 조장해서라도 재집권하겠다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경악과 함께 분노를 금할 수 없다. 새로운 세기를 맞으려면 우리 역사를 질곡에 빠뜨렸던 과거의 잘못된 관행과 제도를 청산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때가 어느 때인데 지역감정을 이용 대통령 선거용 표몰이를 한다는 구상을 할 수 있는가.

그것도 군사 쿠데타와 학살, 온갖 반인도적인 범죄를 저지른 중죄인으로, 권력형 비리와 부정부패의 주범으로 사법처리되었던 전두환 · 노태우씨를 석방과 사면을 하겠다는 것이니 기본 상식도 없는 몰염치한 행동에 아연할 뿐이다.

수백명의 광주시민을 학살했고, 삼청교육대에서 현장 사망자 58명을 비롯한 백수십명을 죽였고, 수만명의 양심수를 양산했으며, 고문, 의문사 등 반인도적 범죄로 공포 독재 주범이다. 수천억씩을 부정하게 착복한 부정부패의 주범이다. 그들을 석방한다면 도대체 누가 감옥에서 죄의 댓가를 받으며 마음 속으로 승복하겠는가? 우리는 전 · 노씨가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5,6공 당시의 학정과 악행으로 단죄된 것임을 다시 강조하고 하며, 이들을 사면한다는 것은 바로 5,6공의 학정과 악행을 모두 인정하겠다는 것으로 밖에 볼 수 없다. 또한, 그들의 학정과 악행이 되풀이되는 것을 방관하겠다는 것이며, 그런 학정과 악행을 해서라도 정권을 잡고, 유지하겠다는 반민주적이고 반역사적인 발상임을 경고한다.

전두환 · 노태우씨가 자신들의 죄를 시인하고, 국민 앞에 솔직히 사죄한 적이 있는가. 오히려 그들은 '정치적 희생양' 운운하며 재판과정에서도 내내 억울함을 항변하지 않았던가. 그 이후에도 그들이 참회하는 어떤 말이나 행동을 했다는 것을 우리는 들어 본 적이 없다. 더욱이 그들은 신한국당 대선 경선과정에도 개입하기 까지 하는 몰염치한 작태를 보인 바 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양심수에 대해서는 추호도 사면할 생각도 하지 않으면서, 5,6공 당시의 인권피해자들에 대해서는 진심으로 정부의 잘못을 사과하고 그들의 피해를 치유하고 어루만져줄 방안을 찾지 않으면서 중대범죄자들에게는 왜 이토록 관대하려 하는가. 우리는 현 정권에서 전 · 노씨를 석방시키거나 사면하려는 어떤 기도도 결사 저지할 것임을 분명히 밝힌다.

<우리의 주장>

1. 신한국당 이회창 대표는 전 · 노 사면 문제에 대한 당의 분명한 입장을 밝혀라.
1. 김영삼 집권 내 전 · 노 사면 논의 중단하라
1. 학살주범 · 부정부패 주범 전 · 노 사면 결사 반대한다
1. 양심수를 가둬놓고 전 · 노 사면 웬말이나
1. 민주주의 말살책동 전 · 노 사면 결사 반대한다
1. 5,6공 인권침해사건에 대한 진상규명과 명예회복, 배상을 실시하라!

1997년 8월 6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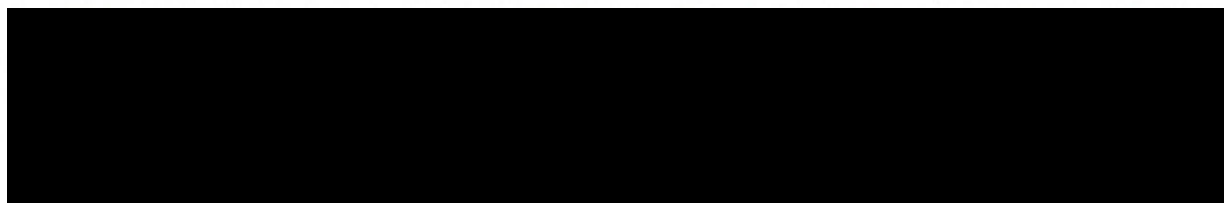
5.18완전해결과 정의실현 · 희망을 위한 과거청산국민위원회

97년 7월 재정보고
(97년 7월 16일 - 8월 15일)

전기이월: +1,469,905원

수 입		지 출	
회비	2,076,900	활동비	3,270,000
구독료	1,598,500	사업비	60,000
사업수익	290,900	발송비	155,620
기타수익	348,230	사무비품	321,200
		사무실유지	873,610
		자료구입	24,000
		식대(야근)	274,200
		전화요금	781,410
		사무기기	320,000
		복사비	248,955
		기타	100,500
수입총액:	4,314,530원	지출총액:	6,429,495원
최종결산:	-645,060원		

<6월 자문 · 운영위원 회비>(가나다 순)



(표기상 착오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상이 있으면 연락해 주십시오)

운영 · 자문위원 여러분, 밀린 회비 없나요?

이번 여름 밀린 회비 꼭 청산해 주세요

잘못 보내주시는 회비로 사랑방이 운영됩니다. 여러분의 정성을 헛되이 쓰지 않겠습니다. 보내주시는 회비는 위에서 밝힌 지출 내역대로 쓰여집니다. 회비 지출에 대해 문제가 있다고 생각되시면 언제든지 말씀해주십시오.

<구좌 안내>



지 로: 7618848

예금주: 서준식